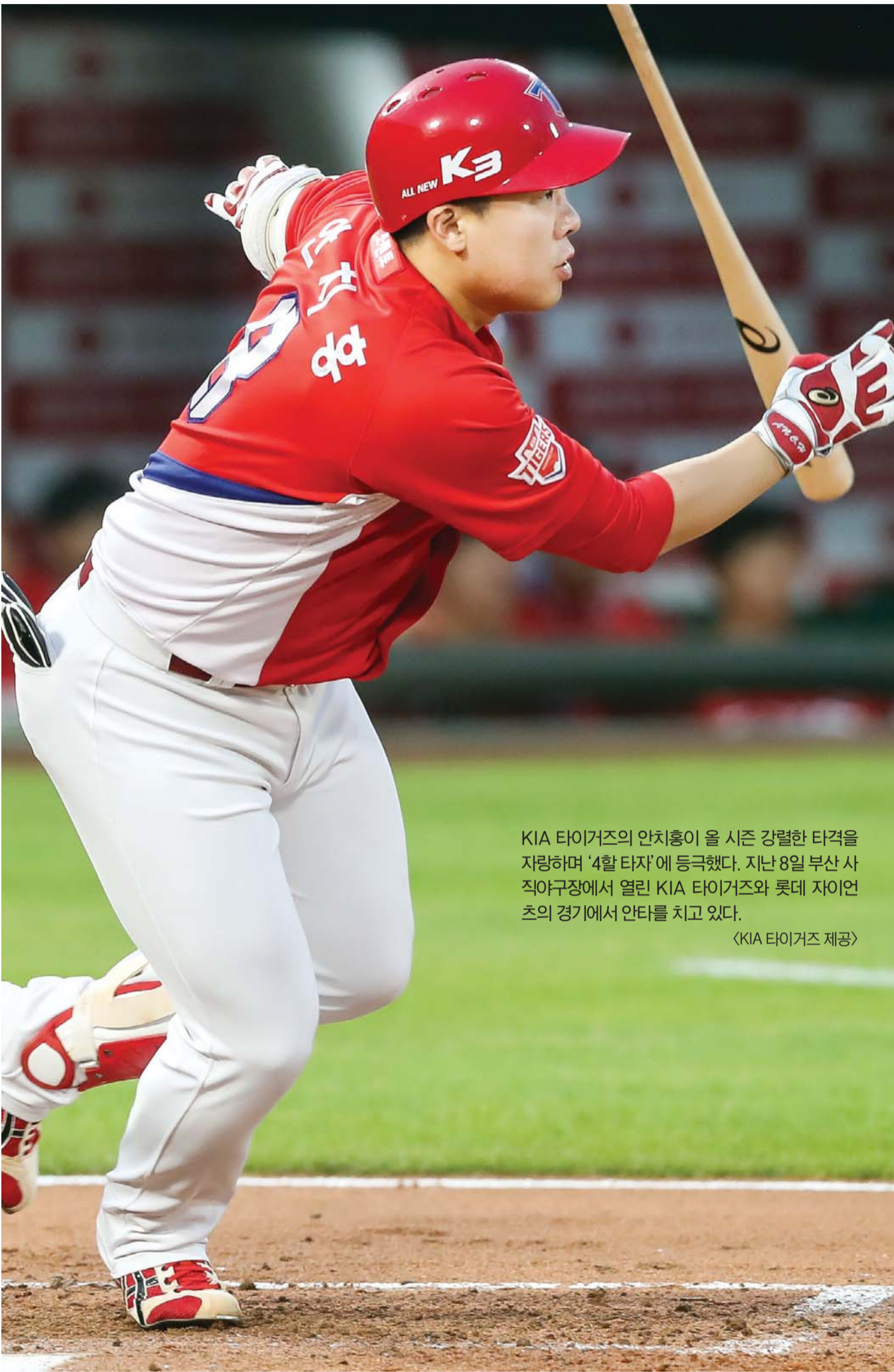


안치홍 “4할 의식 안해...목표는 100타점”



KIA 타이거즈의 안치홍이 올 시즌 강렬한 타격을 자랑하며 '4할 타자'에 등극했다. 지난 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안타를 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절정의 타격감 보이며 타율 4할 '리그 1위' "캠ป์때 노력이 결실...행운의 안타도 많아"



'준비된 4할 타자' 안치홍이다. KIA 타이거즈의 안치홍은 올 시즌 팀에서 가장 꾸준하고 강렬한 타격을 자랑하고 있다. 3~4월 18경기에서 0.373의 타율을 찍으면서 순조롭게 2018시즌을 연 안치홍은 5월 25경기에 출전해 0.392의 타율을 기록했다. 뜨거운 봄을 보낸 안치홍의 기세는 6월에도 계속됐다. 안치홍은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이를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6월을 열었다. 3일에는 4안타를 몰아치면서 절정의 감각을 과시했다. 그리고 5일 kt원정에서 멀티히트와 함께 마침내 안치홍은 '4할 타자'에 등극했다. 부상도 막지 못한 안치홍의 꾸준함이다. 4월 18일 LG 윌슨의 공에 맞아 손가락

미세 골절을 당했던 안치홍은 복귀전이었다. 5월 1일 롯데 사직원정에서 바로 안타 행진을 재개했다. 지난 5일 kt원정에서 발꿈치 부상을 입은 안치홍은 7일 결장 이후, 지명 타자로 나선 8일 통중 속에서도 3안타를 쓸어담았다. 타자들에게는 영예스러운 이름 '4할 타자'지만 안치홍은 "4할 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크게 의식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치홍이라는 4할 타이틀보다는 앞선 경험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뒀다. 안치홍은 "스윙을 짧게 가져가는 등 캠프에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노력했던 게 결과로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 프로와 야구도 많이 바뀌고 여러 시도를 했었다. 연습했던 게 상황에 맞춰서 나오고 있다. 중심 이동도 많이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좋다"고 말했다. 준비된 4번 타자에게 행운도 따른다.

안치홍은 "몸이 무겁고 방망이가 잘 안 나가는 날도 있다. 그런데 올해는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다. 컨디션이 떨어질 때 기분 좋은 안타가 나오고 있다"며 웃었다. 안치홍은 지난 9일 롯데원정에서도 2루수 글러브 맞고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기분 좋은 4할 행진을 하고 있지만 안치홍은 타율보다는 타점에 더 욕심을 내겠다는 각오다. 안치홍은 "4할 의식 안 하고 때 타석에서 집중해서 팀 승리에 역할을 하고 싶다. 100타점(2017년 93타점이 최고)을 아직 못봐서 타점에 욕심난다"며 "주자도 나가줘야 하고 운도 필요하다. 지난해에도 주자들이 있으면 편하게 집중이 잘 됐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된다"며 팀의 해결사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10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와 롯데의 경기는 4회말 우천으로 게임이 선언됐다. 안치홍은 이날 두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경기가 취소되면서 189타수 78안타, 0.413의 타율로 한 주를 마감했다. 또 11개의 홈런과 함께 47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사직·김여울 기자 wool@

임기영 “평균자책점 낮은 운동을 형이라 불러요”

덕아웃 T 특특

▲형이라고 불러요=특별한 친구 임기영과 김운동이다. 경북과 동기인 두 사람은 소문난 절친. 지난 9일 경기에서는 임기영이 4-2로 앞선 5회말 2사 1루에서 등판해 3이닝을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 투수가 됐다. 임기영에 이어 등판한 김운동은 홈드를 남겼다. 하지만 김운동은 이날 불륜세이프를 기록할 뻔했다. 8회 2사 1루에서 등판한 김운동은 안타와 볼넷으로 만루를 만든 뒤 어렵게 8회를 막았고, 9회에는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는 등 0.1이닝 3실점을 했다. 임기영은 10일 "어렵게 평균자책점 낮춰냈는데 운동이 만루 만들고 내 주자를 들여보내려고 하더라. 점수 주면 화를 내려 했다. 그런데 운동이 나보다 평균자책점이 낮아서 내가 형이라고 부른다"고 웃었다. 김운동의 평균자책점은 3.22, 임기영은 5.65다. 한편 통릴리프로 역할을 맡게 된 임기영은 "좋은 때 많이 나가고 싶다. 중간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내 주자라

는 생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제자 말고 현 제자=10일 KIA 덕아웃에 웃음이 터졌다. 김기태 감독이 "유원상!"을 외치면서 시작된 해프닝이다. 덕아웃에서 장비를 챙기고 있던 유원상을 보고 김 감독이 형 유원상(NC)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난을 친 것이다. 이에 유원상은 "유원상!"을 외치면서 김 감독의 장난에 응수했다. 이어 유원상은 "옛 제자 말고 현 제자!"를 이야기해 사람들을 웃겼다. 김 감독과 유원상은 LG 시절의 스승과 제자다. 유승안 경찰청 감독의 아들이기도 한 유원상은 지난해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KIA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지난 8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9회 무사 1루에서 김주찬의 데타로 나온 유원상은 KIA에서의 첫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했다. ▲멋있게는 빠주세요= 임기영이 9일 시즌 첫 세이브자 통산 세 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등판해 기록한 값진 세이브다. 이날 KIA는 7-2로 앞선 상황에서 9회를 맞았다. 하지만 김운동이 백투백 홈런에 이어 볼넷 그리고 2루타를 맞으면서 흔들렸다. 7-4로 좁혀진 무사

2-3루에서 등판한 임기영은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내주는 했지만 탈삼진 두 개를 더하면서 세이브를 기록했다. 임기영은 "2점을 줘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던지려고 했다. 볼넷을 주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빠르게 승부를 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수진에 후배도 많은 만큼 책임감도 들고 잘해야겠다는 마음이다. 주어진 역할을 멋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한 임기영은 "아 멋있게는 빠주시고, 잘하려고 한다라고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아 그러온드가 딱딱하구나= 서재용 코치가 9일 마운드 데뷔전(?)을 치렀다. KIA는 이날 경기에서 앞서 이대진 투수코치를 2군으로 내리고 신동수 코치를 불러들이며 코치진을 개편했다. 또 등 담증상을 보인 임창용과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정성훈도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엔트리 변동에 따라 서재용 코치는 9일 경기에서 메인 코치로 마운드에 첫선을 보였다. 오랜만에 마운드에 오른 소감을 묻자 서재용 코치는 "아 그러온드가 딱딱하다?"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

박태환 자유형 800m 은메달 '건재 과시'

TYR 프로 수영 시리즈 대회

박태환(29·인천시청)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대비 차원에서 출전한 미국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건재를 과시했다. 박태환은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레라 조지 F. 헤인즈 국제수영센터에서 열린 2018 TYR 프로 수영 시리즈 대회 사흘째 남자 자유형 800m 경기에서 7분57초68로 2위에 올랐다. 올해 첫 국제대회 메달 획득이다. 1위는 미국의 제인 그로스(7분55초14)였다. 박태환은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자

유형 100m·200m·400m·1,500m 네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아시안 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남자 자유형 800m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신설된 종목이며, 8월 아시안 게임에도 이 종목이 추가됐다. 지난 4월 대표 선발전에서 이 종목에 출전하지 않았던 박태환은 장거리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이번 대회에는 참가 신청을 했다. 경기에 출전한 27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박태환은 50m를 꾸준히 30초대 초반에 주파하며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50m에서 28초26으로 폭발적인 막판 스피드를 보여줬다. /연합뉴스

강정호 빅리그 재진입 초읽기?

싱글 A 홈런 3개 등 10안타... 타율 0.417

강정호(31)가 2루타를 포함한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로 빅리그 재진입 가능성을 더 키웠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산하 싱글A 브레이턴 머로더스에서 뛰는 강정호는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의 조지 M.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열린 탬파 타폰스(뉴욕 양키스 산하)와의 방문경기에서 3번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타점을 올렸다. 싱글A 타율은 0.381에서 0.417(24타수 10안타)로 올랐다. 10안타의 절반인 5안타가 장타(홈런 3개, 2루타 2개)다. 1회초 1사 3루, 첫 타석에 들어선 강정

호는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렸다. 시즌 11번째 타점이다. 3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장보 강정호는 6회 선두타자로 등장해 우전 안타를 쳤다. 8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우익수 쪽 2루타를 생산했다. 강정호는 7일 홈런, 9일 2루타에 이어 3경기 연속 장타 행진을 이어갔다. 음주운전 탓에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리고, 올 시즌도 뒤늦게 팀에 합류한 강정호는 빠르게 타격감을 끌어 올리며 빅리그 재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중이 동우회장이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제48회 대통령기 전국중학교야구대회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동성중, 광주야구인 동우회장이 중학교 야구 우승

동성중이 제23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동성중은 최근 무등경기장에서 끝난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제48회 대통령기 전국중학교야구대회 예선 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팀이 됐다. 지난해 우승팀 무등중을 포함해 4개 팀이 리그전으로 치른 이번 대회에서 동성중은 진흥중을 15-3, 5회 7점 풀드게임으로 이긴 후, 중앙중을 상대로 13-6, 5회 7점 풀드게임승을 거뒀다. 동성중은 무등중과의 경기에서도 7-3으로 이기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동성중은 이번 우승으로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대통령기 전국중학교야구대회 광주 대표 자격도 얻었다. <대회 시상 내역> ▲최우수선수상: 최지욱(동성중) ▲우수투수상: 김성민(동성중) ▲타격상: 조승우(5타수 4안타·0.800·동성중) ▲최다루상: 송태환(6개·진흥중) ▲최다타점상: 김도영(8타점·동성중) ▲감투상: 문동주(무등중) ▲미기상: 김성도(동성중) ▲감독상: 강대성(동성중) ▲지도상: 송치용(동성중 야구부장) ▲심판상: 장윤창(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김여울 기자 wool@

최지만 대타 출전 빅리그 첫 만루홈런

최지만(27·밀워키 브루어스)이 대타 역전 만루 홈런을 쏘아 올렸다. 빅리그 무대에서 첫 개인 첫 만루포다. 최지만은 10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방문경기, 2-3으로 뒤진 6회 2사 만루에 투수 브렌트 스터 대신 타석에 섰다. 최지만은 볼 카운트 3볼-2스트라이크에서 상대 좌완 볼펜 루이스 가르시아의 시

속 159km 바깥쪽 투심 패스트볼을 밀어쳤다. 공은 왼쪽 펜스를 넘어갔다. 스타캐스트가 측정된 비거리는 347피트(약 106m), 타구 속도는 시속 155km다. 최지만은 6회말 투수 조시 헤이터와 교체됐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기회에서 가장 짜릿한 장면을 만들었다. 최지만의 만루 홈런은 이 경기의 결승타였다. /연합뉴스

추신수 25경기 연속 출루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25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다. 추신수는 10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홈 경기에서 1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으나 볼넷 3개를 얻어 1루를 세 번 밟았다. 이로써 추신수는 지난달 14일부터 이어온 연속 경기 출루를 '25'경기로 늘렸다. /연합뉴스

한 경기만 더 출루하면 추신수는 개인 두 번째로 최장인 26경기 연속 출루 기록과 타이틀을 이룬다. 추신수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던 2008년 8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26경기 연속 출루했다. 추신수는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4월 26일까지 2년에 걸쳐 가장 긴 35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세웠다. 텍사스는 3-3인 7회초 조지 스프링어에게 결승타를 맞고 3-4로 겨 3연패를 당했다. /연합뉴스